

지금-여기에서 그때-그곳으로, 그리고 다시 내일로 가는 길

[서평] 안재원(2019), 『원천으로 가는 길
— 서양 고전 문헌학 입문』, 논형, 408쪽.

김기훈*

1. 서양 고전 문헌학 되짚어 보기

서양 철학사나 철학 개론서에서 철학을 정의하고 그 학문적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맨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철학이란 말의 기원이다. 어원적으로 ‘지혜에 대한 사랑’(philosophia)을 일컫는 말이 철학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터이다. 이와 유사한 조어 구조를 지닌 또 하나의 말이 주목되는데,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배우는 데 열의를 보이는 사람 혹은 그러한 경향에 대해서 고전기 그리스인들은 ‘말(logos)을 사랑하고 아끼는’(philologos)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지혜를 사랑하는 이’(philosophos)라는 용어가, 완전히 지혜롭지도 어리석지도 않지만 지혜를 사랑하고 갈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것에 반해,¹⁾ 이 philologos라는 표현은 앞

* 서울대학교 서양고전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에서 언급한 긍정적인 뜻 외에 단순히 말이나 표현에만 얽매인다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경멸의 뉘앙스를 띠기도 했다.²⁾ 그러던 것이 오늘날 문헌학(Philologie; classical philology)으로 간주될 만한 영역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 된 것은 기원전 3세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제3대 관장을 지낸 것으로 전해지는 학자 에라토스테네스(Eratosthenes, 기원전 285-194)가 스스로를 philologos라 자칭하면서부터였다.³⁾ 이러한 표현과 직결된 philologia라는 학문 혹은 학술(ars) 명칭은 상대적으로 후대에 붙여지게 되지만, 서양 고전 문헌학의 학술사를 되짚어 볼 때 맨 먼저 그리고 가장 멀리 가리켜 보이게 되는 시대와 공간은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다.

“서양 고전 문헌학 입문”이라는 부제가 덧붙여진 안재원 교수의 저서 『원천으로 가는 길』이 시작되는 대목은 바로 여기서부터이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10여 년에 걸쳐 발표하고 여러 지면에 게재한 글과 논문을 한 자리에 모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전형적인 개론서나 ‘교과서’적인 성격의 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정통 서양 고전 문헌학을 전공한 중견학자가 다년간에 걸쳐 오래된 ‘말과 글’, 고전 문헌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해 온 학문적 성과로서 “서양 고전 문헌학 입문”이라는 표현에 걸맞은 내용을 갖춘 책으로 출간되었다. 머리말을 제외한 본문 총 3부 14장과 맺는말, 총 15편의 글은 “역사”, “실제”, “만남”이라는 핵심어를 통해 세 묶음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3부 각각을 완결된 단위로 간주하고 읽어도 독서와 이해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인상을 준다.

우선, 제1부는 ‘지금-여기’에 이르기까지의 서양 고전 문헌학의 역사

1) 플라톤, 『향연』, 203e-204c 참조.

2) s.v. “φιλόλογος” in Liddell, Scott, Jones and McKenzie eds. *A Greek-English Lexicon with Revised Supplement (9t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3) Rudolf Pfeiffer, *History of Classical Scholarship: From the Beginnings to the End of Hellenistic Age*, Oxford: Clarendon Press, 1968, pp. 152-170, 특히 p. 156 이하 참조.

를 되짚어 보는 총 여섯 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저자의 문헌학사적 논의는 기원전 3세기 초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된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전 문헌학의 ‘원천’ 기술이라 할 만한 문헌연구 방법론이 태동한 곳이 다른 아닌 ‘그때-그곳’이었기 때문이다. 『원천으로 가는 길』의 첫 번째 장은 헬레니즘 시대부터 기원 전후 1세기까지 주목할 만한, 고전 문헌에 대한 해석과 접근 방법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기에 활동했던 일련의 작가들과 학자들의 저술과 독법 등을 근현대의 기준으로 학술 지식이나 엄밀한 학문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문헌 추적”(investigatio)과 “비교-검증”(contracta emendare ac distinguere)에 입각한 문헌 교정 작업을 문헌 내적 판독술(paleography)의 시초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비판적 분석이다(pp. 14-15). 그리고 오늘날 학술적 글쓰기, 문헌학적 비평 등에서는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문헌 부호들, 주석과 비판 장치(apparatus criticus)의 전통 역시도 이 헬레니즘 시대에서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저자는 사례를 들어 뒷받침하고 있는데, 다소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 것은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를 비롯한 초기 그리스 고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경지식이나 사전 이해 없이는 이들 문헌들을 해석하고 비평하고자 한 헬레니즘 시대 학자들의 학문적 시도, 업적에 대한 이해가 수월하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이 점은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서양 고전 문헌학을 공부하는 학생과 앞으로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독자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는 서술 전략으로 보인다. 다만, 조금 더 가독성을 높이고, 교양 독서층을 위해 문턱을 낮추자면 고전기 그리스-로마 문학사에 대한 연표, 주요 작가와 작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록’의 형태로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에는 이 책이, 우리말로 된 마땅한 교재나 참고도서가 부족한 고전 문헌학 교육 현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지는 “중세 시대의 서양 고전 문헌학”에 대한 글은, 필사본 판독

술과 관련해 저자의 중요한 사례 연구를 담고 있다. 이 2장은 서기 6~7세기 그리스도교 성직자이자 학자였던 이시도루스의 『어원론』의 주요 대목 원문을 분석하고 번역함으로써 문헌 간의 수용, 영향사에 대해 치밀한 논의를 내놓고 있다. 안재원 교수가 분석하는 각종 ‘문헌 부호’들은, 특정 문헌을 읽고 분석하는 도구이자 문헌 간의 소통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글의 요지는, 이시도루스가 전승하고 있는 26개의 문헌 도구가 그 이전의 전통을 변용하고 보완한 것임을 문헌학적 비교-검증을 통해 해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외에 조심스레 저자가 추정하고 있는 또 다른 전승에 대해서는 문헌 전거 제시가 필요하므로 더 나아가기를 삼가며 논의를 마무리하는데,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어제 그리고 거기를 밝히는 데” 기여하는 서양 고전 문헌학의 정체성이자 원칙이라는 점이 또한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읽기, 독서는 “기지(既知)에서 미지(未知)로의 여행”이라는 말을 저자는 인용한다(pp. 38-39). 진리 혹은 로고스(logos)⁴⁾라는 원천을 찾아가는 그와 같은 여정에서 마주치게 될지도 모를 “수많은 비약과 오해의 위험”을 방지해 주는 안전장치가 고전 문헌학에서 사용하는 ‘문헌 부호’들이라는 저자의 분석이 흥미로운 대목이다. 오늘날 서양 고전 문헌학을 공부하는 초학자들이 가장 먼저 친숙해져야 하는 것이, 문헌 편집본의 비판 장치와 주석 등에서 사용되는 각종 약어와 기호,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본문 해석 기법과 독법인데, 이 유서 깊은 전통은 문헌학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서양 고전 문헌학의 연구대상은 통상적으로 고전-고대 시대라 일컬어지는 시기의 문헌들로서, 대체로 기원전 8세기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 『오뒷세이아』로부터 시작해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 전

4) 참고, 『공동번역 성서(개정판)』, 『요한복음』 1:1: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logos)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종교적 신념과는 별개로 고전 문헌학자의 일차적인 읽기, 연구 대상은 말(lemma-logos)로 쓰인 문서와 문헌들이며, 이를 좀 더 세밀하게 읽어나갈 수 있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동시에 안전장치 구실을 해주는 것이 문헌학적 도구와 장치 그리고 방법론이다.

후, 혹은 『로마법 대전』(*Corpus Iuris Civilis*)을 편찬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재위 527-565) 치세⁵⁾까지의 시대 범위에 해당된다. 물론, 서양 고전 문헌학 혹은 보다 간략히 표현해 서양고전학 입문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문헌들의 시대는 그보다는 범위가 좁고 다루게 되는 작가나 작품들의 수도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소위 ‘고전’작품들의 경우도 현존하는 문헌들의 수는 상당히 방대해서 다작 활동을 한 작가의 저술들을 어느 한 연구자가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단순히 문헌 원문을 읽고 해독하는 데에도 수년에서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특정 연구들의 경우에는 여러 학자와 연구자들의 협업과 공동연구가 필수적이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 지금-여기에 이르기까지의 서양 고전 문헌학의 역사 역시도, 이와 같은 특징을 잘 보여준다. 『원천으로 가는 길』 3장부터 6장까지에 이르는 고전 문헌학의 역사 추적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저자는 14세기 페트라르카(F. Petrarca, 1304-1374)의 고전 원전 복원과 문헌학적 기여에 대한 대목부터 문헌학사를 정리하고 있다. 고전 문헌학의 학술적 분석 도구로서 이른바 ‘라흐만의 방법론’(Lachmann’s Method)⁶⁾의 토대는 이미 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자들과 학자들의 고전 문헌 재발굴과 분석, 출판 등에 기반한 것임을 『원천으로 가는 길』 제1부의 후반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헌들을 수집, 조사하고 그것들의 관계를 비교, 검

5)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칙법회찬』(*Codex*)을 최초로 반포했고, 또한 아테네에서 철학 교육을 금함으로써 플라톤이 세웠던 아카데미아를 사실상 철폐했던 때가 서기 529년인데, 시대 구분상 이 해를 고대의 마지막 해로 간주하기도 한다. 비슷한 시기(530년경) 성 베네딕토는 몬테 카시노에 서유럽 최초의 수도원을 세워 그리스도교 역사에 새 장을 열게 된다.

6) 1963년에 이탈리아 문헌학자 팀파나로(Sebastiano Timpanaro)가 라흐만의 방법론의 역사와 한계를 논의하고 분석한 저서 *La genesi del metodo del Lachmann*은 2006년 영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원천으로 가는 길』에는 독일어 번역이 참고문헌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 영역본의 서지사항은 이하와 같다. Sebastiano Timpanaro, *The Genesis of Lachmann’s Method*, tr. by Glenn W. Mos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6.

증하고 필요한 필사본들을 최소화하는 과정(recensio-collatio-eliminatio)을 거침으로써 문헌계보도(stemma codicum)가 그려지고, 해당 문헌에 대한 본문 교정과 조직(emendatio-organisatio) 작업이 이어진다. 접근 가능한 ‘원천’ 문헌들을 직접 다루고 분석해 내어놓는 지난한 작업은 정교하고 세밀한 노력,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서양 고전 문헌학자에게 요구한다. 이 과정은 이 책의 제2부 “실제”(특히 7장)에서 보다 상세히 소개되고 있는데 그에 앞서 독자는 이 ‘문헌학적’ 방법론이 정립되기까지의 역사적 연속성과 영향사에 대해 미리 접할 수 있다. 이처럼 숙지해야 할 개념이나 용어 등이 책의 전반부에 자주 소개되고 간략히 미리 설명되는 것은 『원천으로 가는 길』이 지닌 장점 중의 하나로 평할 수 있다. 적게는 수백 년에 걸쳐 전승되어 온 필사본, 그보다 훨씬 오래되어 천년 단위로 헤아려지는 고전 문헌들에 대한 분석과 판독 방법은 17~18세기를 거치면서 이성주의의 확산, 대학 중심의 교육제도 변화 등으로 인해 한층 더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간다. 19세기 들어 서양 고전 문헌학⁷⁾은 대학과 학술단체의 기반과 토대 위에서 독립적인 분과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연구 분야나 방법론을 아우르는 보다 포괄적인 고대학(Altertumswissenschaft)으로 확장되었으며, 나아가 유럽을 벗어난 지역으로까지 그 영향력의 범위를 넓혀갔다는 저자의 설명(pp. 88-89)은 그에 앞선 독일 고전 문헌학 전통에 대한 탄탄한 논의에 기반한 것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 대목이, 안재원 교수가 몇 차례 짚어주고 있고 또한 아쉬움을 표한 바 있듯이 루돌프 파이퍼가 서술한 ‘고전 문헌학의 역사’의 끝자락에 해당한다.⁸⁾

7) 다행히도 국내 고전 문헌학도나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독자라면, 이 책과 함께 루돌프 파이퍼의 『인문정신의 역사』(정기문 옮김, 서울: 도서출판 길, 2011)를 통해 르네상스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보다 많은 수의 고전 문헌학자들의 업적과 기여에 대해 참조할 수 있다. 이 책은 파이퍼(Pfeiffer)의 저서 *History of Classical Scholarship: 1300-1850*, Oxford: Clarendon Press, 1976의 번역이다.

8) 이와 함께 파이퍼가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공백의 시대는, 헬레니즘 시기 이후

일단락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서양 고전 문헌학의 역사는,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내다보면 그 시대와 공간이 ‘지금-여기’에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책의 5장과 6장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자의 논의에 따르면, 유럽 바깥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간 서양 고전 문헌학은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는 동아시아에도 소개되었다. 요컨대,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도입되기 시작한 고전 문헌학은 앞에서 언급한 ‘고대학’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논의 중에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동아시아 각국의 주요 학자들과 그들이 남긴 문헌 속에서 나타나는 개념과 용어 분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훈고학, 고증학을 비롯한 동양 고전 문헌학 전통의 역사 역시도 이 과정에서 감안해야 할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점에서 “본격적인 공동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은 타당해 보인다(p. 101). 명시적인 흔적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시기 한국의 경우 서양 고전 문헌학의 수용 역사를 추적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지만, 그럼에도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리스도교의 전파와 수용 과정에서 그 단서를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원천으로 가는 길』은 말한다. 이 책에는 그 이상의 상세한 추적 과정이 담겨 있지 않지만, 최근 저자 안재원 교수가 비판 정본(editio critica) 편집을 맡아 출간한 한국 가톨릭 교회사 자료로 *Hagiographica Coreana*⁹⁾와 같은 문헌들은 관련된 후속 연구에 중요한 원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총 3권의 비판 정본이 출간된 이 문헌은, 이탈리아 시에나 대학의 이득수 연구소(Centro di Studi Comparati I Deug-Su) 소장 프란체스코 스텔라 교수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 한국 근대 그리스도교 역사

중세시대와 비잔티움 제국 시대의 문헌학 연구인데, 안재원 교수는 이를 “새로운 연구 영역”(terra incognita)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p. 263).

9) Jaewon Ahn, Francesco Stella eds. *Hagiographica Coreana, Acta Processus in Causa Beatificationis Martyrum in Corea (1839-1846)*, Vol. 1-3, Pisa: Pacini Editore, 2007-2017.

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오래전 원천 문헌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고전 문헌학이 ““오늘 그리고 여기”를 만드는 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는 저자의 검사(p. 38)와는 달리, 서양 고전 문헌학자들의 연구와 그 성과들이 오늘의 한국 고전 문헌학을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는 사례 중 하나가 다름 아닌 고(故) 이득수(1938-2004) 교수¹⁰⁾에게서 안재원 교수에게로 이어진 이 ‘바티칸 문헌’ 연구¹¹⁾일 것이다. 이와 같은 라틴어, 프랑스어와 근대 한국어로 작성된 19세기 한국 가톨릭 교회 문헌들은, ‘한국’ 서양 고전 문헌학 연구자들에게는 살펴봐야 할 또 다른 원천이자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그리스도교가 자발적으로 수용되기도 하고 문화 전체에 광범위하게 전파된 예외적인 나라라는 점에서, 또한 오랫동안 경학(經學) 전통이 융성했던 문화적 유산을 감안한다면, 동서 문명의 교류사 연구, 문헌학 전통의 비교, 영향사 연구 등도 중요한 또 한 갈래의 길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원천으로 가는 길』에서 여러 차례 사례를 소개하고 실제로 비교 연구를 시도하고 있는 중국의 고전 문헌학의 실체가 눈에 띈다. 가령, 책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들로 베이징 대학에서 주도한 ‘유장(儒藏) 편찬 사업’(pp. 107-113)이나 런민대학의 문헌학 교육 프로그램(pp. 134-135) 등은 서양 고전 문헌학의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디지털 시대의 문헌학의 사례들이다. 14장에서 동서 문명/문헌 교류사를 다루면서 소개하고 있는 <Bibliotheca Sinica 2.0>의 경우는 1477년에서 1939년까지 출판된 중국과 관련된 방대한 서양 문헌들의 디지털 보고로서 앞의 사례의 반대급부인 셈인데, 동아시아에 소개되고 번역, 출간된 같은 시기의 서양 문헌들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의 참조 사례로

10) 안재원(2005), 「중세 문헌학자 이득수 — 성인학(Hagiographia)과 문헌학(Philologia) 연구를 중심으로」, 『서양사연구』 33, pp. 177-198 참조.

11) 안재원(2014), 「《바티칸 문서》와 《기해-병오 박해 순교자 증언록》은 어떤 관계인가?」, 『교회사학』 11, pp. 35-94 참조.

제시된다. 서양 고전 문헌학의 ‘역사’는 이처럼 지금-여기에 가까워지면 서, 디지털 시대의 동아시아-한국 고전 문헌학의 오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2. 서양 고전 문헌학의 실제와 오늘

『원천으로 가는 길』의 제2부 “실제”에서 독자 혹은 문헌학도는 서양 고전 문헌학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조우하게 된다. 우선, 저자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이 문헌학적 연구 방법론이 한국 인문학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번역-주해 작업에 기여하고, 동양/한국 고전 문헌학의 방법론과의 비교와 상호 발전이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pp. 139-140). 문헌 편집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문헌학의 역사를 논의하면서 어느 정도 소개된 바 있지만, 제2부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개념 설명, 각각의 과정에 대한 엄밀한 기술로 문헌학적 방법론과 실제 문헌 편집 과정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요컨대, 하나의 비판 정본을 편집할 때에는, 수다한 문헌 필사본들에 대한 추적, 판본전승조사, 판본 최소화와 비교-검증(examinatio)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본문 교정과 조직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문헌학자가 취해야 하는 태도와 고민에 대한 강조와 당부도 저자는 잊지 않고 있다. 서양 고전 문헌학 ‘입문’으로서의 『원천으로 가는 길』의 가치는 특히 이 대목에서도 빛을 발하는데, 서양고전학을 전공하거나 관련된 학문을 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생소한 문헌학 전문용어나 개념들이 우리말로 번역되고 설명되고 있는데다가 이를 보다 수월하게 습득할 수 있는 실제 사례들도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령, 문헌 편집 본문과 비판 장치에서 소개된 부호와 약어 등의 실제 용례는 저자의 실제 비판 정본 주해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다 흥미로운 예는, 7장 말미에 소개된 우리말 문헌에 대한 문헌 주해 사례(pp.

168-175)인데, 이는 저자의 실제 고전 문헌학 수업의 수강생의 것으로 보이며 서양 고전 문헌학의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과 가능성을 가늠케 한다. 자체적으로 상당한 완결성을 보이는 이 사례는 한 일간지의 1929년 10월 8일자 중에서 『일리아스』의 발췌 번역 기고문을 읽고 그에 대해 ‘비판적 본문 편집-번역-주해’ 작업을 거친 결과물이다. 짧은 분량에 학술적인 전문성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형식과 내용 면에서 표본이 될 만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해 이것은, 『원천으로 가는 길』 7장에서 아주 상세히 기술되고 설명된 고전 문헌학의 원리와 방법론이 비교적 잘 적용된 사례라 할 수 있는데,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서 우리말로 된 원천 사료를 발굴했을 때 가능한 학술연구의 형태를 구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저자의 진단과 분석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고전 문헌학적 토대 구축과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학술적, 제도적 대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8장에서 다루는 문헌 판독술의 경우에는 실제 기록 매체로서의 필사본과의 직접 대면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과거에는 그 쓰임새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단적으로, 고중세 이래로 전해져 오는 필사본들을 검토하고 진위 여부와 영향 관계를 가리기 위해서는 필체와 서법, 표기 방식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했다. 훼손되거나 부식되기 쉬운 문헌 기록들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졌지만, 기록술과 보존 매체의 발달 덕분에 마이크로필름,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변환된 원천 자료들을 문헌학자가 보다 폭넓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원천으로 가는 길』에도 다종다양한 필사 글꼴, 축약 표기 형태 등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온전히 활자화되어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하게 편집되어 있다. 일부 변환되지 못한 자료들의 경우는 해상도가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지만, 현재의 고문헌 디지털 자료 편집과 출판 현실에 비추어 보자면 책을 출간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저자와 출판사의 노고가 대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비단 이 책에만 국한된 한계는 아니

며, 국학 자료를 비롯해 동서 문명 교류사 연구 등에 있어서 고문헌을 전자문서로 변환, 보존, 공유하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폐어(廢語)나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문자나 기호는 차치하더라도, 각종 기록 매체에 담긴 옛 문헌들에 담긴 문자 해독과 직결된 광학 문자 인식(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기술에 대한 유관 학술기관이나 정부부처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원천으로 가는 길』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을 위한 문헌학적 제언과 상통하는 대목일 것이다. 이어서 책의 9장 “『라틴어 대사전』”에서 저자는 고전 문헌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학술공구(organon)라 할 수 있는 사전 편찬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그 편찬사가 다뤄지는 *Thesaurus linguae Latinae*는 서양 고전 문헌학자가 개별 단어나 개념을 연구하는 데 참조하고 조회하는, 비유컨대 사전 자료들의 종착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방대한 분량의 라틴어 대사전으로, “probably the most scholarly dictionary in the world”¹²⁾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런데 『원천으로 가는 길』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이 대사전은 최초의 계획에서 어느덧 100년의 세월을 훌쩍 넘기기도 완료되지 못하고(p. 220) 편찬 중에 있으며 23개국의 학술단체와 31개 학회가 참여하여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학자들이 그 여백을 채워나가고 있다.¹³⁾ 이처

12) s.v. “Dictionary: scholarly dictionaries” in *Encyclopaedia Britannica.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137 (2), 2007, pp. 473-507에 “The “Thesaurus Linguae Latinae” and Classical Scholarship in the 21st Century: Five Perspectives”라는 제목 하에 Kathleen Coleman의 Introduction(본문의 인용문은 p. 474의 재인용)과 함께 게재된 총 6편의 글은 이 『라틴어 대사전』의 역사, 가치, 전망 등에 대해 참고할 만한 자료이다.

13) 현재 알파벳 순서에 따라 “p” 항목의 표제어들에 대한 편찬 작업은 일단락되었다. 추가적으로 남아 있는 것들은, “n” 항목의 상당 부분, “r”부터 “z” 항목까지, 그리고 고유명사 항목들이다. 2018년에는 표제어 “nebel — nemo”까지의 사전 항목 정리가 완료되어 출판되었고, “regnum — relinquo”까지의 표제어가 2019년에 출간될 예정이다. 참고로 앞에서 언급한 각 단위의 표제어 정리 작업은 인쇄본으로 88쪽

럼 고전어 사전 편찬 작업이 방대하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문헌 자체의 규모와 역사에 비례하는 것이기도 하고, 고전 문헌학의 학문적 엄밀성 그리고 새로이 맞게 된 학문 환경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다. 디지털 시대의 기록 매체 변화에 맞게 고전 라틴어, 그리스어 사전들은 인쇄본 출간과 함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기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문헌, 사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실현하려면, 문헌학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학술 연구자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의 협업, 정부 혹은 학술기관과 각종 공적기금의 투입 등이 필요하다(pp. 115-129 참조). 사실, 우리말로 된 마땅한 고전어 사전이 거의 없다시피 한 터에 국내 서양고전학 연구자들은 주로 외국어 사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최근 들어서는 『원천으로 가는 길』에서도 소개된 Perseus Digital Library와 같은 이른바 ‘오픈 소스’ 형태의 디지털 자료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Thesaurus linguae Latinae*의 경우처럼, 요긴하면서도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는 연구자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수월하게 열려 있지 않은 않다. 예를 들면, 보다 전문적인 문헌학적 검증을 거친 비판 정보 형태의 고전문헌의 경우는 기관 협약이나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는 유료 구독을 통해서만 그 원천 자료에 접할 수 있다. 『라틴어 대사전』과 마찬가지로, *TLG*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Thesaurus linguae Graecae*의 경우도 보다 포괄적이고 학술적인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대학이나 학술기관의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¹⁴⁾

정도의 분량이다. 이에 대해서는, *Thesaurus linguae Latinae*를 출판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출판사 De Gruyter의 온라인 웹페이지(<https://www.degruyter.com>, 최종접속: 2019년 2월 26일) 참조.

- 14) UC 어바인(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에서 주관하여 운영 중인 The Thesaurus Linguae Graecae® (TLG®)는 호메로스 시대로부터 비잔티움 제국 멸망(1453)에 이르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 문헌들을 수합하고 전자문서로 만들어 집약적인 문헌 제공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개인이나 기관별로 소정의 금액으로 일정 기간 구독할 수 있는 그리스 문헌 아카이브이자 학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이다(<http://stephanus.tlg.uci.edu>, 최종접속: 2019년 2월 26일).

『원천으로 가는 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와 함께 또 하나 참고할 만한 고전 그리스어 사전 편찬의 사례가 있다. 소위 “Cambridge Greek Lexicon Project”¹⁵⁾가 목표로 삼고 있는 고전 그리스어 새 사전 편찬 작업은 2003년 이후 지금까지 16년에 걸친 연구와 학자들의 협업 끝에 1,500쪽 분량의 중사전(intermediate size dictionary)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 이 사전은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데이터뱅크(datbank) 형태로도 관련 연구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 사전에 대한 구상은 영국의 언어학자 존 채드윅(John Chadwick, 1920-1998)¹⁶⁾에 의해 시작되어, 각종 학술기금과 기부금을 기반으로 수십 명에 이르는 유럽과 북미 학자들의 동참과 노력을 통해 그 성과가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Cambridge Greek Lexicon*은 기존의 전통적인 그리스어 사전들¹⁷⁾과는 달리 기획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사전 형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그에 걸맞은 형태와 구성으로¹⁸⁾ 출간될 예정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전 편찬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 상당수가 이미 대사전 편집 과정에 기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서양고전학 연구자들의 책상 위에서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LSJ*라는 약칭으로 더 익

15) 이하 “Cambridge Greek Lexicon Project”에 대한 내용은 케임브리지 대학 고전학부에서 개설하여 공개한 온라인 웹페이지(<https://www.classics.cam.ac.uk/research/projects/glp>, 최종접속: 2019년 2월 26일) 참조.

16) 마이클 벤트리스(Michael Ventris, 1922-1956)와 함께 이른바 선형문자 B(Linear B)의 해독 작업에 성공했던 그의 저술 중 일부가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되어 있다(존 채드윅, 『선형문자 B의 세계: 문자로 살펴본 고대 그리스 문명의 발자취』, 김형주, 김운한 옮김, 서울: 사람과책, 2012).

17) 이향천(2003), 「그리스어 사전 기술」, 『2003년 여름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pp. 301-326, 특히 pp. 304-307 참조.

18) 예컨대,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에서 각종 태그(tag)를 활용한 디지털 사전 구축 작업이 인쇄본에서 구현되는 표제어 나열과 어느 정도로 호환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술적 문제도 Cambridge Greek Lexicon Project가 풀어야 할 숙제였다고 한다.

히 알려져 있는 *A Greek-English Lexicon*은 리텔(Henry Liddell, 1811-1898)¹⁹⁾과 스코트(Robert Scott, 1811-1887)가 공동으로 편찬해 1843년에 초판이 발간되었다. 그 후 개정을 거듭하다 공동 편찬자 사후에 존스(Henry Stuart Jones, 1867-1939)와 맥켄지(Roderick McKenzie)에 의해 1940년 9판이 출간되었다. 이 고전 그리스어 사전의 *LSJ*라는 별칭은, 리텔, 스코트, 존스의 성(姓)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전 곳곳에 남아있던 각종 오식과 오류 등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보록(Supplement) 형태로 덧붙여졌고, 1996년 출간본부부터는 320쪽 분량의 이 보록이 합본되었다. 이 그리스어 사전 내 표지에는 “with the cooperation of many scholars”라는 문구가 더해져 인쇄되고 있다. 이러한 많은 학자들이 오늘도 여전히 말과 단어의 개별 역사,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 “표상되는 실제 세계의 역사”(p. 237)를 일궈나가는 데 일조하고 있다.

3. 서양 고전 문헌학의 내일 그리고 가능성

작게는 단어(lemma) 하나, 글자 하나를 놓고도 그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만 하는 고전 문헌학자의 학문 영역은 상대적으로 좁고 연구 대상 역시 한정적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른다. 반면에 『원천으로 가는 길』 제3부 “만남”편에 수록된 이야기(logos)들은 고전 문헌학자의 안목과 지평이 어느 정도로까지 넓게 확대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책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고전의 재발견이 서양의 근대화를 여는 데 기

19) 헨리 리텔의 한 지인이 그의 딸이었던 앨리스(Alice Liddell, 1852-1934)를 비롯해 그 자매들에게 어느 날 들려준 이야기는 앨리스의 요청에 따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1865)로 출간되었다. 이 책의 출판 당시 작가의 필명은 루이스 캐럴(Lewis Carroll, 1832-1898)이었다. Alice-in-Wonderland.net (<http://www.alice-in-wonderland.net>, 최종접속 2019년 2월 26일) 참조.

여한 사례에 대해서, 동서 문명/문헌 교류사 연구에서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문헌학자가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고전 문헌의 수용과 전파를 추적함으로써 동서양의 문화사를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흥미로운 읽을거리들을 담고 있다. 그런데 주의를 요하는 점은 이것이 단지 ‘읽을거리’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마다의 논의들은 문헌학적 근거와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분석을 통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대 로마의 저술가 플리니우스의 『자연학』에서 보고된 사례와 유사한 『산해경(山海經)』의 개소를 비교하고 그 유사함을 역사적 배경과 문헌 비교 등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pp. 276-284)는 자체적으로도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저자의 전망처럼 동서 문명 교류사 연구의 가능성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는 논의인 듯하다. 하지만 그것의 전제가 되는 것은 동서양 문헌에 접근할 수 있는 언어적, 문헌학적 역량을 해당 연구자가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동서 문명 비교 연구는 단지 동아시아와 서양, 오직 양자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만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데, 『원천으로 가는 길』에서 보다 세밀하게 진단하고 있듯이 앞으로의 연구는 한자 문명의 동서 교류사에 대한 것에서부터, 중앙아시아, 아랍-이슬람 문화권의 문헌 연구 등 다방면에서의 학술적 협력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p. 289). 이를 위해서는 고전 문헌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연구 인력의 양성이 또한 절실하다. 참고로,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서울대학교에는 학부 과정 중 연계전공의 하나로 고전문헌학²⁰⁾이 개설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 총 21학점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작성하면 수료할 수 있는 이 과정에서 필수 교과목 3개 중에서 <서양고전문헌학입문>, <동아시아문헌과 규장각>은 한문 트랙, 그리스어·라틴어 트랙을 선택한 학생 전원이 공통적으로 수강하게끔 편성되어 있다.

20) 서울대학교 고전문헌학(Classics and Philology) 연계전공 온라인 웹페이지(<http://cnp.snu.ac.kr>, 최종접속 2019년 2월 26일) 참조.

규모나 기간 등 학제적인 면에서 독자적인 학과나 학문으로서 자립한 형태는 아니지만, 그리고 총 3년간의 대학 인문역량 강화 시범 사업기간이 종료됨으로써 당장에는 확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고전 문헌학이 대학 교육 과정의 일부가 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며 호응을 얻어온 것은 고전 문헌학 연구자들의 노력과 성과, 그리고 문헌학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지지해 준 학문공동체 덕분일 것이다. 『원천으로 가는 길』에 담긴 저자의 지난 10여 년간의 발자취 역시도 오늘에 일조한 바가 적지 않은 듯하다.

그런 점에서 특히 더 눈에 띄는 것이 책의 13장 ““Regi Corum”은 고려의 충숙왕인가?”이다. 이 장은 지난 2016년 하반기 주요 언론 매체에 보도되어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던²¹⁾ 흥미로운 문헌학적 사례를 다루고 있다. 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팀이 바티칸 비밀 문서보관소에서 발굴해낸 것으로 알려진 편지 서두에 “Magnifico viro Sece de Chigista regi Corum”이라는 문구가 화제가 되어 그해 말에는 관련된 학자들이 모여 이 서한의 진위 여부와 해석에 대해 학술적인 논의를 갖기도 했다. 저자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 편지 문건과 관련된 문헌들을 검토하고 후속 논의들을 검토해 문헌학적 비판을 거친 논의를 학술지에 게재했다.²²⁾ 이 연구논문이 『원천으로 가는 길』의 “만남”편에 수록된 것이 13장인데, 이 글은 서양 고전 문헌학이 한국의 문헌학과 만나 한국학 분야에 직접 적용되기도 한 훌륭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교황 요한 22세가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이 편지의 필사본을 직접 검토하고(pp. 296-297), 이 문건을 담고 있거나 다룬 후대의 편집본과 문헌 역시도 문헌학적 방법을

21) 이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29일자 <연합뉴스> 기사 “교황, 1333년에 고려 충숙왕에게 서한 보냈다”(https://www.yna.co.kr/view/AKR20160928186200005, 최종접속 2019년 2월 26일) 참조.

22) 안재원(2016), 「교황 요한 22세가 보낸 편지에 나오는 Regi Corum은 고려의 충숙왕인가?」, 『교회사학』 13, pp. 129-163.

통해 사정(査定)한 뒤 비판 정보를 제시한다(pp. 299-301). 이어서 문헌 전체에 대한 우리말 번역과 상세한 주해를 덧붙임으로써 논란이 된 “regi Corum”이 고려의 충숙왕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새길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해명한다. 문헌 내적인 면, 문헌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문헌 외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배경 등의 측면에서 치밀하게 분석한 이 연구로 인해 이 편지에 대한 논란은 거의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²³⁾ 다른 어느 장에 비해 학술적이고 또한 전문적인 논의로 인해 읽고 이해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원천으로 가는 길’을 유심히 따라 걸어온 — 또한 읽어온 — 독자에게는 앞에서 소개되고 논의된 고전 문헌학의 방법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연히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이 당장의 일상과 오늘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고민과 논란에 대한 연구 성과라는 점에서 한결 더 실감나는 사례라 평할 수 있다.

우리말로 된 오래된 책들이나 동양 고전, 그리고 우종서(右縱書)의 형태로 쓰여 출판된 책들을 읽어온 이들은 대체로 경서(經書)의 가르침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데 익숙한 독서 태도를 가진 반면, 가로쓰기와 읽기 경험만 가진 이들은 시종일관 고개를 가로젓기만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 서로 다른 독서 방식과 경험이 고전 문헌학자에게는 동시에 요구되는 바이기도 한데, 그는 오랜 전통(traditio)에 따른 문헌 전승을 일단 겸허히 수용해야 하기도 하고, 또한 오해나 오류가 있는 대목에서는 이성(ratio/logos)에 기대어 고개를 가웃거리며 해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기도 한다. 『원천으로 가는 길』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수많은 책들의 여

23) 2017년 1월 1일자 <한국일보> 기사 “교황이 고려 왕에게 편지? 잘못된 해석”(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1012138942009, 최종접속 2019년 2월 26일) 참조. 이 기사는 안재원 교수의 연구논문에서 제기된 반대 입장을 간접인용한 방식의 보도이다.

행, 동서 문헌 교류의 역사와 문헌 목록을 살펴보면, 고전 문헌학자가 동서로 종횡으로 읽고 넘나들어야 할 고개와 길이 여전히 험난해 보인다. 한 연구자가 여러 언어에 능통하고 다방면으로 두루 학식을 갖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테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분야의 학자와 연구자들의 협력과 공동 연구가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교감(校勘)과 비판(批判)을 통해 촘촘한 활자들 사이에서 그 행간의 의미를 찾아온 동서양의 고전 문헌학 전통은 그런 점에서 16세기 이래 동서 문명/문헌 교류사 연구에 호혜적일 수 있다. 저자가 일부 소개하고 있는 17세기 문헌 『명리탐(名理探)』 연구(pp. 324-326)와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에 대한 연구(pp. 361-364)는 관련된 좋은 사례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동서 문명 교류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국내에서도 점차 커지는 추세인 듯하다.²⁴⁾

『원천으로 가는 길』은 “왜 비판정보인가”라는 물음과 이에 대한 저자의 답변과 제언으로 끝을 맺는다. 본문을 읽어 온 그래서 원천으로 이르는 이 길목에 이르게 된 독자라면, 『춘향전』, 『택리지』²⁵⁾ 등과 같은 우리 고전의 정보화 가능성, 소위 둔황 문서들에 포함되어 있는 동서 문명 교류의 흔적들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시도 등의 사례를 통해 고전 문헌학의 가능성과 내일을 예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의 지금-여기의 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다. 한국 인문학의 자생력과 독자성 확보를 위해서 저자가 주장하고 제언하는 비판 정보화 사업은, 언어 자원, 텍스트-콘텐츠 자원, 학문의 기초 도구 자원 확보를 가능케 해줄 것이다. 하지만 그 규모와 기간, 연구 인력의 확보와 양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24) 『원천으로 가는 길』에서 동서 문명 교류의 논거로 제시된 문헌 가운데 하나가 근자에 국내에도 출간되었다. 아고스티노 라멜리,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계들』, 홍성욱 해설, 서울: 그림씨, 2018 참조.

25) 저자도 언급하고 있는(p. 382), 최근 번역, 출간된 ‘정보’ 『택리지』는 총 10명의 번역진이 참여해 “200여 종에 이르는 이본 중 선본 23종을 선정하고, 이들을 교감하여 정본을 확정된 뒤 번역”한 것으로 전한다(이중환, 『완역 정본 택리지』, 안대희, 이승용 옮김, 서울: 휴머니스트, 2018, p. 4, ‘일러두기’ 참조).

국가와 정부 차원의 학술 정책과 지원 등이 따르지 않으면 실현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돌이켜보면 이 땅에 서양 고전 문헌학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역사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닌데, 그 시작 역시 대학 교육 현장과 학문공동체의 인식 변화 그리고 학제 개편을 통해 가능한 일이었다. 1989년 말 설립되어 1991년 3월부터 첫 대학원 신입생을 선발하여 운영되어 온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전공이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공식적으로 고전 문헌학과 관련된 고등교육이 시작된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이 기간 서양고전학의 저변은 점차 넓어져 왔고 서양고전이나 문헌학에 대한 인식 역시 제고되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서양고전학의 학술 환경은 상대적으로 척박하고 운신의 폭이 넓지는 않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나오게 된 『원천으로 가는 길』은 저자 안재원 교수가 그 사이에 걸여온 고전 문헌학 연구, 학술활동의 발자취이기도 하며, 또한 국내 서양고전학이 서 있는 오늘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서양 고전 문헌학’이라는 명칭이 『원천으로 가는 길』의 부제로나마 명시될 수 있었다는 점도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함께 최근 고전 문헌학과 관련되어 출간된 서적들의 경우도 후속 연구자들과 고전 문헌학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²⁶⁾ 다만, 저자가 밝히고 있듯이 “서둘러” 나오게 된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서적인 성격의 책은 아니기 때문에 초심자나 문헌학에 관심을 갖 가지게 된 이들에게는 분량이나 난이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입문서’에 가까운 서적이거나 참고도서가 필요해 보인다.²⁷⁾ 또한 실제로 고전 문헌학 공

26) 예를 들면, 예기심, 『교감학개론』, 신승은 옮김,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8; 안대희 외, 『고전학의 새로운 모색』, 서울: 성균관대학교대동문화연구원, 2018 참조. 논문 선집 형태의 후자에는 안재원 교수의 글도 한 편 수록되어 있다.

27) 비교적 접하기 용이한 한두 종의 사례로 이하의 것들을 들 수 있다. 양계초, 『중국 고전학 입문』(개정증보판), 이계주 옮김, 서울: 형성사, 1995(초판 1973); 브루스 손턴, 『고전학 공부의 기초 — 서구 문명의 뿌리를 이해하는 법』, 이재만 옮김, 파주: 유투, 2018.

부를 하고 있고 또 시작하려는 이들을 위해서는 공부와 연구에 요긴한 각종 공구서, 고전 문헌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접 학문들²⁸⁾, 예컨대 수사학, 고대 철학, 역사 등 각 분야에 필요한 문헌 목록들을 일종의 부록의 형태로나마 덧붙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저자의 지적처럼 아직 우리말로 된 것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필수적인 공구서들조차도 그 확보가 미비한 실정이긴 하지만 말이다(p. 386).²⁹⁾ 한편, 디지털 인문학과 관련된 학술 정책 수립이나 학술 환경과 학제 보완 등의 문제³⁰⁾를 고려할 때에도 『원천으로 가는 길』(예컨대 6장, 14장, 15장)에서 그 근거로 삼을 만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저자가 그 소망을 피력하면서 제안하기도 한 *Thesaurus linguae Coreanae*(p. 237)나 *Bibliotheca SINACOPA*(p. 365) 같은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와 아카이브 구축 등은 지금·여기 그리고 미래의 학문공동체를 위해서도 참고할 만한 것들이다.³¹⁾ 그리고 향후에 출판 여건이 허락된다면,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갱신(update)과 공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디지털 문헌학과 관련해 생각해볼만한, 가령 인공지능(AI)과 문헌 번역, 디지털 아카이브의 공유와 지적 재산권, 저작권 문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격차 문제 등도 고전 문헌학이 고민해야 할 또 다른 문제들일 것이다.

28) 『원천으로 가는 길』, pp. 83-86에 정리된 문헌학과 고대학의 체제 예시에 기반해 고전 문헌학도나 독자가 참고할 만한 문헌목록을 부록의 형태로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29) 마찬가지로 이유로 책에서 주로 다루진 주요 용어와 개념의 원어 “색인” 항목이 가해 있다면 추가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30) 김민규(2018), 「국내 디지털인문학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인문콘텐츠』 51, pp. 41-67 참조.

31) 국내 한국학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역사정보 통합시스템(www.koreanhistory.or.kr)을 비롯해 각종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개선에 동서양 고전 문헌학 연구 경향과 전망이 또한 일정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상에서 천의무봉(天衣無縫)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책과 문헌에 관해서 고전 문헌학자는 말과 글, 문리(文理)의 원천을 향해(ad fontes) 더딘 발걸음을 하루하루 내딛는다. 그리고 그는 앞서 걸으며 어찌면 닿지 못할 진리의 그 근원을 또한 누군가를 위해 손끝으로 가리켜 보이기도 한다. 어려운 사정 속에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책에 대해 당장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온당치 않겠지만,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이 길 위를 걸어 나아가면서, 이상적인 철학자가 지혜를 사랑하기(philosophen) 마련이듯이 내일의 어느 고전 문헌학자 역시 말과 글 그리고 그것에 담긴 이야기와 진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데(philologein) 『원천으로 가는 길』이 얼마간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老死愛書心不厭，來生恐墮蠹魚中。

늙어 죽어도 책 사랑하는 마음이 싫증나지는 않지만,
다음 생에 책벌레로 떨어지지 않는까 두렵구나.

육유(陸游, 1125-1210), 〈한야독서(寒夜讀書)〉 三首其一 중에서³²⁾

물론, 이처럼 책과 문헌에 대한 애정이 곡진해서 다음 생에 책과 종이를 쏴아 먹는 책벌레로 태어나지는 않을까 — 더욱이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 걱정을 할 정도의 고전 문헌학자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책을 펴내면서 저자가 예감하고 있듯이 이 “원천으로 가는” 멀고도 험한 길에 선뜻 들어설 후학이나 후속 연구자들의 수가 많지는 않을까도 모른다(pp. 4-5). 그럼에도 그의 바람대로 『원천으로 가는 길』은 지금-여기에서 서양 고전 문헌학을 공부하고 있거나 공부하고자 하는

32) 陸游, 《劍南詩稿》卷十九(원문 인용 출처는 錢仲聯 校注, 《劍南詩稿校注》卷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p. 1490). 인용문은 문헌학자 고(故) 이득수 교수가 생전에 애송했다고 알려진 시구로, 안재원 교수의 글 「중세 문헌학자 이득수」에 발췌 인용된 것을 원문과 대조해 다소 고쳐 읽은 것이다.

이들에게 저 떠나면 그때-그곳으로 안내하는 지침서로서, 그리고 다시 내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보인다.